

지역 소식통

부안군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쉼터' 운영

부안군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이명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치매환자 주간 쉼터 운영을 지난달 15일부터 재개하여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분산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뿐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면 지역에도 사각지대 없는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찾아가는 쉼터도 함께 운영한다. '치매쉼터'는 치매진단자 중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대기자, 인지지원 등급자를 대상으로 치매약화 방지를 위한 미술치료, 공예치료 등 전문적인 인지건강교실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쉼터 운영을 재개하고 찾아가는 쉼터 운영으로 치매환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치매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휴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민간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앞장'

정읍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위해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유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상 대피 시설과 단열 등 시설 노후화로 인한 소규모 개보수 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이다.

최근 저출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대상은 민간어린이집 5개소와 가정어린이집 5개소로 총 10개소에 사업비 4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지난 5월 사업 공고해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고 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선정,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누룩명인' 탄생

귀농인 한영석 씨 '전국 최초' ... 발효 산업 세계화 열정 쏟아부어

정읍시 귀농인 한영석(남, 51세) 씨가 전국 최초의 한국무형문화유산 전통 누룩 분야 명인으로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재)한국무형문화예술교류협회는 전통 발효제인 '누룩'의 제조기법을 오랜 시간 연구·개발하고 계승 발전시켜 온 한영석 씨의 발효연구소' 한영석 대표를 전통 발효 누룩 분야 명인으로 지정하고 지난 17일 인증서를 교부했다.

이번에 지정된 명인은 앞으로 한국무형문화유산 명인으로 활동하며, 본인이 습득한 기술을 계승자에게 전승·보존하게 된다.

한 대표는 짧은 귀농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 귀농 사례로 자타가 공인하는 정읍의 특별한 귀농인이다.

그는 수원에서 전통발효를 복원하는 연구를 하던 중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지는 청정지역에서 만들면 더 좋은 상품의 누룩을 만들고 스토리텔링화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난 2018년 정읍시 쌍암동 답곡(논실)마을에 귀농했다.

이후, 내장산 자락에 100평 규모의 전통발효 누룩 공장을 짓고 가장 전



전통발효 누룩 분야 명인으로 선정된 정읍시 귀농인 한영석씨.

통적이고 한국적인 방식으로 누룩을 띄워, 대한민국을 넘어 발효 산업의 세계화를 목표로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한 대표는 누룩 숙성에 대한 장인정신을 계승하고, 전통방식을 전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

현재 정읍시 귀농귀촌학교와 경기대학교, 한국기장연구소 등에서 전통

발효 누룩 분야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우리 민족의 창의성을 전승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 궁중 술 빚기 대회 대상 수상(2014년), 누룩 성형기와 성형 방법 특허출원(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전통 발효 누룩 전문위원(2017년) 등 다수의 수상 이력과 경력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고유방식으로 10가지 종류의 누룩을 띄워내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양조장과 식초공장, 교육장 체험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영석 대표는 "활체에 의존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전통발효 누룩을 접하고 건강을 되찾게 됐다"면서 "전통 발효제인 누룩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조기법을 개발해 후손들에게 전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전통 발효제 누룩은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기반으로 선조들의 뛰어난 지식과 경험을 통해 탄생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전통 누룩 분야 전국 최초 명인 지정을 계기로 정읍 전통발효 누룩의 명성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20일 오전 시청 로비에서 영덕 단오장사 씨름대회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단풍미인씨름단 "장사 등극" 결의

단오장사 씨름대회 출정식... 서남근 선수 등 12명 출전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이 20일 오전 시청 로비에서 영덕 단오장사 씨름대회 출정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단오장사 씨름대회는 경북 영덕군 영덕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며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정읍시청 단풍미인씨름단은 김시영 감독을 중심으로 태백급(80kg 이하) 3명(지대환, 황찬섭, 김성하), 금강급(90kg 이하) 4명(한다복, 배경진, 전도연, 김수춘), 한라급(105kg 이하) 3명(이승욱, 정상호, 김기환), 백두급(140kg 이하) 2명(서남근, 김병찬) 총 12명이 출전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 선수는 2019년 추석장사대회에서 백두장사에 등극한 서남근 선수와 2019년 구례 지역장사대회에서 금강 장사에 등극한 전도연 선수다.

이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교탁

은 기량을 바탕으로 좋은 성과를 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난 설날 장사대회에서 아쉽게 1품에 머물렀지만, 꾸준한 상봉세를 보이고 있는 한라급의 정상호 선수도 장사 등극을 목표로 대회에 나선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대회가 취소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꾸준히 훈련해온 선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응원하지 못하지만, TV 중계로나마 선수들의 경기 모습을 응원하겠다"고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씨름연맹이 주관한다.

경기 순서는 여자부 여자부 단체전 남자부 순서로 진행되고, 22일부터 24일은 KBSN, 25일부터 28일은 KBS에서 생중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다자녀 무주택가구 11세대 전세임대 입주

고창군·LH '다자녀가구 전세임대주택 지원' 입주자 확정

아이를 둘 이상 키우고 고창군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11세대가 고창군과 LH가 함께 마련한 전세임대 주택에 살게 됐다.

고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다자녀 가구 전세 임대 주택 지원사업의 입주자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정부의 이동주거권 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경감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정책으로 마련됐다. 인구 8만 미만인 자치단체 중 고창군에 최초로 공

급 됐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 대상이다. 지난 2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행했다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차례 연기돼 4월까지 입주자가 접수하고 6월말 최종 11세대가 확정됐다.

다자녀가구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내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임대한다. 고창군의 경우 가구당 지원금액은

8500만원이며,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1~2%의 금리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1.5%(1자녀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0.2% 우대 금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석 기자

부안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모 선정 12억원 확보

부안군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된 2020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범죄나 재

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 조성된 500여 대의 CCTV 영상을 재난상황실 및 119종합상황실, 112상황실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이 구축 완료되면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112·119센터와 현장 출동 경찰·소방관 등 관계기관에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관리하는 영상을 전송·연계해 관계 기관과 합동 대응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경난 박사 위촉

정읍시가 20일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 박경난 박사를 위촉했다. 위촉 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약 1년이다. 이날 위촉된 박경난 박사는 연세대학교에서 주거환경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실련 정책위원, 한국주거학회 주거복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여수·순천시 도시재생사업(역량강화) 총괄, 국가R&D 도시재생 연구 참여,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지원팀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6년 5월 2일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현재 기초센터 1개소와 현장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중에 있다. 센터의 기능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주민협의체 및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주민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홍보 ▲주민과 행정간 연계체계 구축 등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에게는 시에서 추진중인 ▲중심시가지형·공기업제안형·주거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도시재생활성화·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등의 역할이 부여된다.

유진섭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총괄·조정자로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정읍시의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의 속도를 더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